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축은행의 성장전략 모색

Groping for Growth Strategy of Savings Bank as a result of signing the Korea-U.S. FTA

이현식(Hyun-Sik Lee)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저축은행의 추진과제와 성장전략 모색 |
| II. 한·미 FTA 현황 및 평가 | VI. 요약 및 결론 |
| III. 금융환경의 변화와 미래 | 참고문헌 |
| IV. 저축은행의 현황 및 금융권내 위치 | Abstract |

Abstract

Domestic industries are facing the open era as a result of signing the Korea-U.S. FTA with no exception to the financial industry. The FTA between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produce pros and cons for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shock caused by opening our financial market and to adopt the advanced financial tools actively.

Signing the Korea-U.S. FTA and enforcing the Integration Law of Capital Market are leading a big crisis to the Savings Banks which have been shrinking under the dramatically changing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To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Korean Savings Banks are demanded to build up their concrete identity and reposition their status. This is related to shaping the long-term position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the Savings Banks must take the growth strategy for their survival, and it is an inescapable choice. Several options are available: big scale op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business functions, reinforcement of local-focused mediating function of funds, establishment of strategic alliance with other financial firms, reinforcement of risk management system and core competence, nourishment and employ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active deregulation and policy support.

When the Savings Banks are refurbished as an independent local bank performing the central role of local finance, the bright future can be their destiny under the enormously changing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lso, two more conditions need to be satisfied: to establish horizontal networks among local banks directed by cooperative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s to reverse the weak scale position, and to satisfy their own peculiar niche market with internal countermeasure to face global financial networks.

Key Words : Korea-U.S. FTA, Future of Financial Industry, Growth Strategy of the Savings Bank

I. 서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로 국내 산업들은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금융시장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국내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한·미 FTA 체결로 금융시장 개방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흐름은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의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넘어서 세계 금융기관간의 경쟁, 즉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 FTA 체결은 국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는 국내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넓어진 시장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성장 기회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선진 금융기법, 투자전략, 경영기법 등이 도입됨에 따라 질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권을 갖게 되며, 경제 성장의 밑거름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 규격에 맞는 금융감독 규제와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의 도입으로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며, 금융산업을 넘어 국내 모든 산업 분야의 건전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그동안 개방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구조조정과 재무구조의 개선, M&A 등을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나, 해외 선진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있어서 아직도 그 경쟁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금융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인수·합병의 위기를 고조시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 금융기관에 의해서 잠식당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국내 금융시장이 종속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저축은행 업계에 한·미 FTA 체결 및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글로벌화에 대응한 한국 금융산업의 주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축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정체성과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적 구도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의 성장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거대 선진금융기관들이 모여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저축은행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 즉 자신의 역량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할 성장전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국내 저축은행의 문제점 및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변화될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저축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존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에서 한·미 FTA 현황 및 평가, 제3장, 금융환경의 변화와 미래, 제4장 저축은행의 현황 및 금융권내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제5장에서 저축은행의 문제점과 추진과제를 도출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합한 저축은행의 성장전략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한·미 FTA 현황 및 평가

1. 한·미 FTA 추진 현황

한·미 FTA 협상은 지난 2006년 2월 3일에 공식적인 협상을 선언한 후, 동년 6월 5일부터 제1차 본 협상에 돌입하여 2007년 4월에 타결되었다. 2개월 후인 6월 30일에 협정문이 공식 서명되었으며, 현재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금융산업과 관련한 양국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규제를 열거주의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원칙적 허용/ 일부 금지)으로 전환, 상업적 주재¹⁾ 없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허용, 新금융서비스²⁾의 개방,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민영화 추진 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업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해외증권 취득에 대한 규제 폐지,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간 수익증권의 판매 허용 등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의 경우, 국경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제 폐지, 보험사의 외국환 소유 관련 규제(총자산의 30% 이내)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개방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한·미 FTA 관련 금융산업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

분야	주요 쟁점 사항
금융산업 공통	업종 및 금융상품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 요구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허용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新금융서비스의 허용 등
은행업	은행의 민영화 추진 촉구 외국은행 지점 신설에 대한 감독 차별 폐지

- 1)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상대국에 법인 및 사무소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 해외 금융회사들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 新금융서비스란 자국(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FTA 협상 대상국(미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국(한국)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출시되는 상품 및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자산 국내 보유 조항 폐지 외국은행 지점 대표자의 자격 기준 완화 기업과 금융기관간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 규제 폐지 등
자산 운용업	해외증권 취득에 대한 제한 철폐 외국투자자의 증권거래 제한 철폐 외국 수익증권의 판매 대행 의무 폐지
보험업	생보업,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 대리/ 중개업 등의 국경간 공급 허용 한국 보험사와 제휴 및 보험 전문가 고용 제고 방안 유사 보험기관에도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감독법(보험업법) 적용 외화자산 운용 한도 완화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에 대한 완전 자유화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외국계 연금사업자의 접근 허용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자산 보유 의무 폐지 서울보증보험의 주택보증보험 독점 폐지 등

자료 : 서윤석,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 분석, 손해보험 5월호, 2006. 5.

2. 한·미 FTA의 공과(功過)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은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이 맞물리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을 지각변동의 수준으로까지 내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끼칠 영향은 크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³⁾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 증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등이 기대되는 반면, 자금 중개기능의 왜곡 심화, 국내 금융산업의 기반 훼손, 국부 유출,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⁴⁾도 예상된다.

1) 긍정적 효과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 금융회사들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되었다. 즉, 외국자본 유입으로 구조조정이 촉진된 은행권의 경우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의 수가 1997년 26개에서 2007년에는 13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평균 자산이 같은

3)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 6. pp.4-5

4) 황동원, 한·미 FTA와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6. 6.

기간 동안 세배 이상 증가하는 대형화가 이루어졌으며, ROE(자기자본이익률)과 BIS비율도 증가해 수익성과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는 등 외환위기 이전보다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국내 금융상품은 그동안 업종간 경계가 철저히 다양한 상품의 개발에 한계가 있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원유, 금 등 실물자산과 연계된 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와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통한 미국의 선진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해외 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의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투자자가 미국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에서 매매하거나, 한국에 상장된 중국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져, 동북아 지역의 금융투자 수요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자금 중개기능의 왜곡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즉, 미국 금융회사들이 성장과 고용 기여도가 높은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함으로써 시중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순환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금융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Credit Bureau) 및 가치평가(valuation) 체제가 취약해 증권인수(underwriting) 등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하면서 시중자금이 기업부문으로 배분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한·미 FTA 체결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둘째,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열위로 인해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에게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수익률 경쟁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국내 금융회사들에 비해 자산규모, 자본조달비용, 상품설계능력, 시장인지도 등에서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체결로 금융 규제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면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상품 유형 등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간에 시장 확보를 위해 과도한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심화되고, 경영의 안정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등을 유발해 국부 유출의 논란이 심화될 수도 있다. 한·미 FTA

5) 외환위기 전후 30%대였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2006년 3월 말 현재 약 50%로 높아졌고, 가계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157조 4,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임.

체결로 상업적 주제 없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들의 투자 및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 급증하면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회사의 적대적 M&A 증가가 예상되며, 만일 법률시장의 개방이 함께 진전될 경우 미국의 법률 회사들이 집단소송을 부추겨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新금융서비스의 허용으로 인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소비자보호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예컨대 불공정 공시, 불완전 판매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가 국내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도입 등 금융업종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금융 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한·미 FTA의 평가

한·미 FTA 체결은 더 이상 국내 금융회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전폭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장 잠식, 즉 개방에 따르는 수수료는 지불하되, 선진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시장 개방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신용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여건 조성, 둘째, 출자총액제한 및 금산법 등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폐지,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금융 감독기능의 제고 등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다.

먼저, 선진화된 신용평가회사 육성 등 신용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외국의 선진금융회사들이 국내 기업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기업 신용평가체제가 미흡해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순환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담보력 등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제대로 평가받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체제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출자총액제한, 금산법 등 국내 금융산업 특히, 증권·보험회사들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여 대내·외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실하다. 대기업계열에 속해 있는 증권사, 보험사의 경우,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⁶⁾ 등으로 대형화 또는 자본 확충을 통한 자산운용의 능력 제고에

6) 신용상, 한·미 FTA 금융업권별 경쟁 및 대응방안, 금융주간 브리프 15권 23호, 금융연구원, 2006.06, pp. 18-21.

7) 금산분리원칙이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10%까지

한계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주식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시장 감시 기능이 확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도 동일한 수준에서 완화 또는 폐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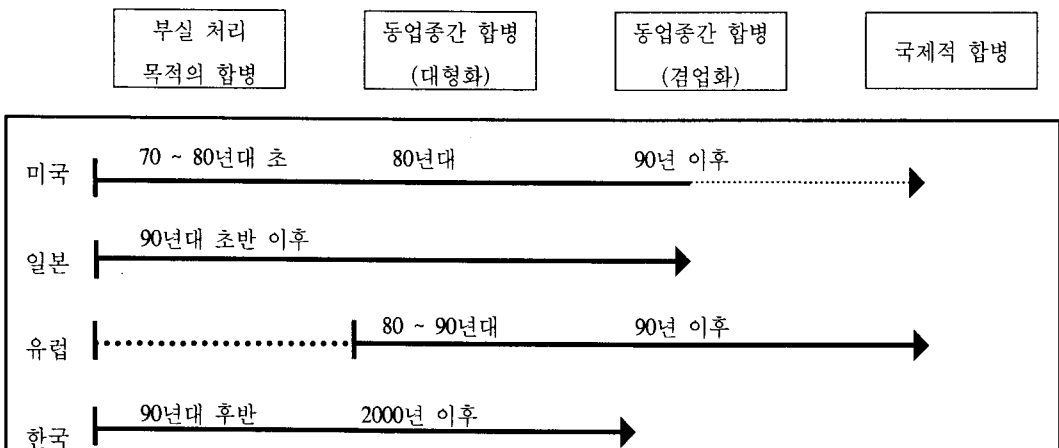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에 앞서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독 체제 확충과 함께 소비자보호제도를 개선하여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Ⅲ. 금융환경의 변화와 미래

1. 선진 금융환경의 변화요인

선진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규제 완화, 고객 니즈의 변화, 기술혁신, 동태적 시장구조 등의 변화요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금융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가 강력히 작용하는 산업으로 변화했으며, 거대 금융기관은 국적과 업무영역에 있어 빠르게 다국적화, 겸업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추구하는 금융수요의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비즈니스 및 금융 감독측면에서도 모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 6. p.16

<그림 1> 선진금융기관 합병의 발전 과정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 니즈의 다양화,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해외투자를 포함한 투자형 금융수요 확대 등 고객 니즈도 변화하고 있다. 고객 니즈의 변화에 따라 복합(hybrid)상품 등장 등 상품 혁신(product innovation)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기법의 고도화, 금융거래의 복잡화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수인력 확보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고객중심화 및 융합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IT 기술혁신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 등 금융 채널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경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개방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동태적 시장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통신, 유통 등 비(非)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IT금융의 증가로 이어져 M&A를 통한 거대 금융그룹의 탄생을 유도하는 등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1>은 선진금융기관들의 대형화를 위한 합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국내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국내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⁸⁾는 첫째, 공급자인 금융기관 중심에서 수요자인 시장 중심으로 이동, 둘째, 규격화된 전표거래에서 전자금융 거래로의 전환, 셋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인한 업종간 영역 철폐로 전업금융에서 다원적인 종합금융으로, 넷째, 토종자본에서 외국자본의 금융업 장악, 마지막으로 리스크 노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산 우려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국내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신 트렌드	원인	현상
시장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발달 · 기업 지배구조 강화 · 신용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심사 및 주주권 강화 · 간접투자 확대, 기관투자가 대두 · 자기자본 및 직접금융 중심
전자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화폐 등장 · 인터넷 보급 · 거래비용 절감 요구 · 개인주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금융거래 확산 · 통신과 금융의 연계 · 사이버자금 조달 확대
종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회피 노력 · 범위의 경제 추구 ·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영역 진출 확대, M&A · 금융기관간 업무 제휴 활발 · 유니버설 뱅킹화

8)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 6. pp.9-15

<p>외국자본 장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개방 · 구조조정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계 금융기관 증가 · 글로벌 스탠더드 촉진 · 수익성 위주의 금융기관 경영
<p>리스크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성과급제 도입 확산 · 가격 변동폭 확대 · 금융상품의 복잡·다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확대 · 로그 트레이더 출현(rogue trader) · 시스템 실패 위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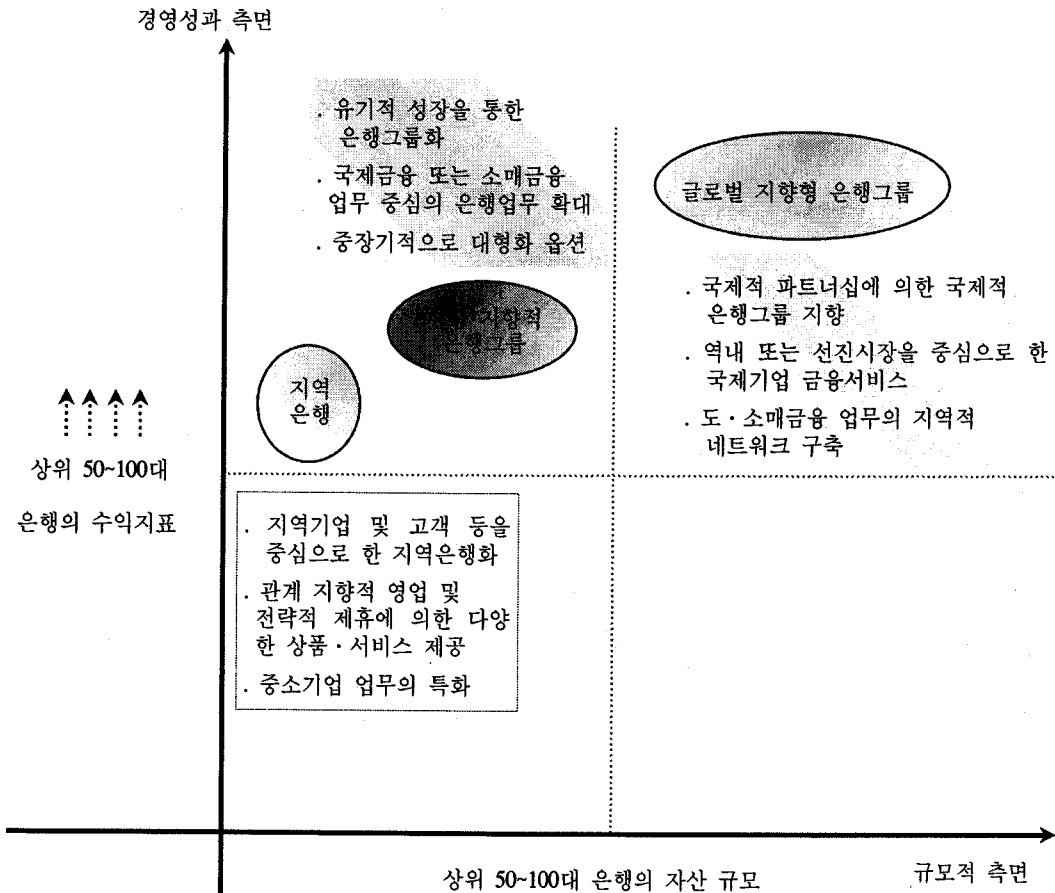
3.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1)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

국내 금융산업은 구조조정의 진행과정 속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선진국형 시장중심금융시스템을 조기 정착시켜야 한다. 즉, 단기·유동성 중심에서 금융자산 축적에 용이한 금융구조로 이행해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하에 진입·퇴출이 용이한 동태적 시장구조로 확대되어야 하며, 단순 중개형(broker)에서 인수·매출형(dealer)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투자의 개념으로 역내 및 신흥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및 자문기능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꾀해야 한다. 셋째, 일반고객과 전문고객 가운데 고액(高額)고객, 기업고객, 해외고객 등 전문고객의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국내 은행권의 발전 전망



자료: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증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 6. p.18.

〈그림 2〉 국내 은행권의 지향 은행 포지셔닝

첫째, 대형 금융그룹이 시장혁신자(market innovator)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 대형은행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M&A를 통한 이합·집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국제화 과정을 통해 자산규모, 업무역량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동안의 단순 중개형(intermediated service)기능은 은행 본연의 핵심 업무로서 시장점유율 유지에 기여할 것이나, 신용카드, 펀드, 보험상품 판매 등 다양한 영업 채널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수익구조의 안정화(balance revenue structure)을 달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영성과 지표중 수익성 지표인 ROA는 1% 이상, ROE는 15% 이상으로 경영목표를 지속적으

로 달성함으로써 이익 변동성(volatility)의 최소화를 통해 금융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GDP증가율 내외의 자산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균형적인 외형성장도 꾀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금융시장의 재편 예상도

(1) 금융기관의 대명화

금융기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쟁적인 대형화 추진은 앞으로도 금융권 재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달성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중·소금융기관은 대형금융기관에 피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거나, 전문 특화 금융기관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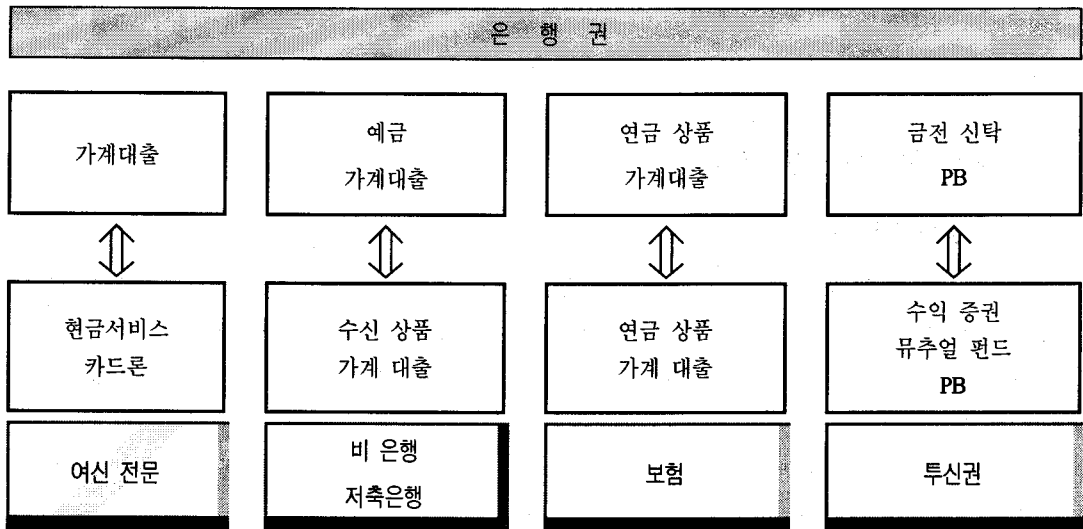
특히, 은행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화 추진은 은행권내는 물론이고 금융권 전체에 재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은행권 내부의 합병 경쟁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 인수 경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 금융권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략적 제휴 및 합병

시중은행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대형화와 함께 겸업화까지 추진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역을 급속히 잠식함에 따라 비은행권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은 자체적인 대형화 추진과 함께 여타 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노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그 동안 지역금융에서 경쟁력을 보유했던 지방은행 및 지역금융기관들은 자체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또는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권간 경쟁관계 심화

국내 금융기관들은 단기간에 급팽창하고 있는 소매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과거 기업금융에 치중하던 은행권에서 소매금융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권과 여타 금융기관들간의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와는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등 소매의 단기 가계자금대출 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비은행 및 저축은행과는 가계 관련 수신 및 여신부문에서, 보험회사와는 연금 상품과 가계대출 부문에서, 증권이나 투신권과는 신탁상품(은행 자체의 신탁상품 및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과 PB 부문 등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료: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 6. p.19

<그림 3> 소매금융시장에서의 은행과 각 금융권과의 경쟁 관계

이처럼 급팽창하는 소매금융시장을 놓고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은행권과 카드사의 소매금융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반면, 나머지 금융권의 점유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비은행 저축은행의 경우는 소매금융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4) 중·소형은행 및 저축은행의 전문화 추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형은행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중은행들이나 지방은행들은 특화전략으로 대형은행의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전문 은행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축은행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업종 전환, 특화전략 등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전환을 계기로 대형화를 위한 저축은행들간의 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명칭 전환 후 지점영업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환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2배로 증액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축은행들간 합병을 통해 지방은행화하는 움직임도 예상되고, 일부 저축은행은 모회사인 금융기관이나 여타 은행권으로 합병이나 매각을 통한 업종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저축은행의 현황 및 금융권내 위치

1.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와 저축은행의 역할

1) 국내 금융기관의 현황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저축은행은 여러 금융기관들 중 유일하게 '지역의 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된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표 3> 국내 금융기관의 현황

2007. 6월말 기준

구 분		기관수(개)	비 고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7
		지방은행	6
		외은지점	36
	특수은행	5	산업, 수출입, 기업, 농협, 수협
	은행신탁	24	외은지점 7개 포함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2 (7)	(3개 은행, 2개 증권사 종합금융계정 포함 시)
	저축은행	108	(2007.8월말 현재)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1,020
		새마을금고	1,579
		상호금융	1,471
우체국예금	1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22	
	손해보험회사	29	보증/재보증사 포함

	우체국보험		1	
	공제기관		4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회
	수출보험공사		1	
증권관련 기관	증권회사		54	
	자산운용회사		49	
	선물회사		14	
	증권금융회사		1	
	투자자문회사		49	
기타금융 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52	신용카드사 6 포함
	자금증개회사		5	

자료: 장용, 금융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의 미래, 저축은행 중앙회. 2007.11.5. p.28

2) 저축은행의 역할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유일한 지역밀착 금융기관(Community Bank)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의해 총대출금의 50% 이상을 은행 본·지점이 소재하는 영업구역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하여야 하는 의무비용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금융수요에 충실한다는 장점과 함께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구역 및 지점 설치에 성장 제한을 받는 단점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더구나 주된 거래대상 고객이 서민이거나 영세사업자이어서 시중은행보다 신용도(Credit Score)가 낮은 고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의 이용이 어려운 4~6 신용등급의 고객이 30.2%(금액기준), 7~9등급 고객이 37.3%, 10등급 고객이 2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총 대출자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61.6%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따라서 저축은행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금리 私金融 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저신용 서민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금융·사회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저축은행은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할수록 건전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로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근본적으로 역차별과 모럴헤저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므로, 공

공성격의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장 서민금융 체계상의 문제점과 추진과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표 4〉 개인신용 등급별 분포와 저축은행 고객 분포

(단위 : 천명, %)

등급구분	전 국민		저축은행 대출 거래자				비 고
	해당자수	구성비	해당자수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1등급	2,398	6.8	2	0.2	455	0.3	1금융권 거래가능자 38.4%
2등급	2,901	8.2	9	1.1	4,268	3.2	
3등급	13,080	37.1	12	1.3	5,907	4.5	
4등급	4,999	14.2	43	4.9	15,746	11.9	
5등급	2,847	8.1	55	6.3	11,677	8.8	
6등급	1,928	5.5	51	5.8	12,571	9.5	저신용자 61.6% (81,316억원)
7등급	1,640	4.7	56	6.4	19,561	14.8	
8등급	2,289	6.5	75	8.6	12,416	9.4	
9등급	1,703	4.8	154	17.6	17,230	13.1	
10등급	1,466	4.2	421	48.1	32,109	24.3	
합 계	35,250	100.0	875	100.0	131,940	100.0	

자료 : 저축은행 중앙회 및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의해 작성, 2007년 7월 말 기준.

2. 저축은행의 성장과 현황

1) 일반 현황 및 여·수신 규모

저축은행의 수는 외환위기 이후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997년 231개에서 2002년 말 116개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2년 이후 추가로 퇴출하는 사례는 현저히 감소해 2007년 말 현재 108개에 이르고 있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관 퇴출의 영향으로 2000년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이

후 연평균 20%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2007년 7월 현재 약 53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총자산의 증가는 대형저축은행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저축은행간에 대형, 중형, 소형저축은행으로 규모의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여신 및 수신 규모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월말 현재 각각 46.조 원과 43.7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신은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23.9%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수신도 2001년 이후 저금리 추세 하에서 은행권과의 수신금리 갭이 유지되면서 연평균 20.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수익성과 성장성

저축은행은 전체적으로 FY'04년 - 3,379억 원의 당기순손실에서, FY'07년 7,513억 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같은 저축은행의 성장과 함께 ROA와 ROE 등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어왔다. 2006년 기준 저축은행의 ROA는 은행권을 능가하였으며, ROE 역시 2005년 이후 20%대를 상회하는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은행권의 소매금융 확대에 따른 우량고객의 이탈, 상호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 유사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영업력 약화, 그리고 취약한 리스크관리 능력에 기인한다 하겠다. 신용위험이 높은 저신용 서민 및 영세사업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신구조는 저축은행의 수익 변동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관리와 업무기반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3)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표 5〉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분포

(단위 : 개, %)

	8%미만	8~15%	15~20%	20%이상	계
2002년말	42 [36.2]	37 [31.9]	22 [19.0]	15 [12.9]	116 [100]
2006년말	65 [59.1]	18 [16.4]	10 [9.1]	17 [15.5]	110 [100]
2007년6월말	71 [66.4]	13 [12.1]	8 [7.5]	15 [14.0]	107 [100]

주 : []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기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건전성이 저하되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0년 이후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고객층의 경제기반 약화와 취약한 리스크관리로 인해 아직도 부실 우려 저축은행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말의 경우 전체 36.2%만이 8% 이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말에는 전체의 66.4% 이상이 8% 이하로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형화 및 양극화

자산 1조 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은 '04년 6월 말 5개사에서, '07년 6월 말 현재 13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07년 6월 말 현재 상위 10개사의 자산 규모는 16.1조 원으로 업계 전체의 1/3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간 M&A 활성화와 맞물려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그룹 규모 확대화 추세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간 여신 및 수신 규모의 편차도 확대되는 등 쏠림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저축은행들의 그룹화를 통한 영업구역 확대로 향후 지방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저축은행의 금융권내 위치

1) 저축은행의 금융권내 위치

저축은행이 국내 금융권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 내외 수준이다. 회사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전체 금융기관의 1.6% 수준이고, 총자산 역시 3% 미만에 불과하지만 총여수신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3% 이상이며, 순이익은 4% 이상에 해당된다. 가장 적은 점포수 및 규모에 비해 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는 ROA가 가장 우수하며, ROE 역시 전체 금융기관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어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우수한 수익창출 능력은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권에 비해 예금고객으로부터 높은 자금 조달코스트(금리)를 지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주 대출고객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어서 수익성이 높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예금고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측면이 있어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업대상의 주 고객 특성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이나 BIS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좋지 않은 수준이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대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나타내는 예대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기관 중에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낮아지는 또다른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주요 금융권과의 현황 비교

주요 비교대상 항목	단위	저축은행		은행	증권	보험	종금사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합계 [B]
		[A]	A/B									
점포수	개	292	1.63	7,072	1,663	7,073	7	1,020	747	14	49	17,939
임직원수	명	7,072	2.61	130,990	31,666	52,701	159	18,284	26,032	647	3,587	271,141
총자산	조원	53	2.77	1,394.2	92.9	271.4	1.2	26.3	67.8	1.3	2.1	1,910.1
자기자본	조원	3.7	2.22	96.5	20.7	27.3	0.2	2.8	13.1	0.3	1.8	166.3
순이익	10억원	751	4.02	11,248	1,689	2,015	22	178	2,562	36	199	18,701
총수신	조원	46	3.26	779.7	56.2	270.5	0.7	22.6	-	0.9	234.6	1,411.2
총여신	조원	43	3.84	930.3	12.4	63.6	0.8	15.3	55.0	-	-	1120.2
고정이하여신	조원	4.4	24.72	7.8	1.0	1.7	0.01	0.7	2.1	-	-	17.8
고정이하여신비율	%	10.0	-	0.84	8.04	2.68	1.30	4.49	3.89	-	-	-
BIS자기자본비율	%	10.19	-	12.75	-	-	16.71	-	-	-	-	-
ROA	%	1.51	-	1.11	5.17	1.76	1.93	0.47	4.38	2.78	13.54	-
ROE	%	21.53	-	14.64	20.29	14.81	12.71	4.35	22.42	11.48	15.05	-

주: 저축은행은 2007년 6월말 기준, 기타 금융기관은 2006년 말 기준.
 자료: 각 금융기관 자료에 의해 저축은행 중앙회 작성.

2) 외국 저축은행의 사례

저축은행이 활성화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저축은행들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태동하여 발전해 왔다. 주택모기지 대출, 소비자 대출 등 지역밀착형 대출(typical community-based loans)을 핵심 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이 업무들 중 한두 가지에 특화하여 성장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관계는 직접적 경쟁은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 전략으로 자국 금융시스템내에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 선진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저축은행업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PF 등 고위험 거래 자산운용을 통한 외형 확대 및 단기수익 추구보다는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정형 자산운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저축은행들간 자산 규모의 편차도 심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업 행태도 상이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 여건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고유의 영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신용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손비용을 줄이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적립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표 7> 외국 선진저축은행들의 자산 및 특징 비교

구분	미국(2005.12)	독일(2004.12)	프랑스(2004.12)
저축은행 수	863개	447개	31개
총 자산	1,391조 원	1,250조 원	485조 원
주요 운용	모기지 대출(55.8%) MBS ⁹⁾ 투자(11.7%)	모기지 대출 중심의 중장기 대출(54.6%)	공공 및 모기지 대출 (53%)
주요 조달	예수금(57%) 차입금(32%)	예수금(79%) 차입금(4%)	예수금(78%) 차입금(17%)
성장전략	· 주택 관련 대출 주력	·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장기대출로 운용 · 저축은행-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	·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 ·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전문화

자료: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6. p.27

V. 저축은행의 추진과제와 성장전략 모색

1. 저축은행 운용상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서민금융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의 기존 사업구조로는 향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불황의 지속과 서민층의 신용위험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운용구조로 성장전략을 구사한다면 부실화가 불가피하고, 현상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위험관리에 대한 강화책 없이는 향후 저축은행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 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중은행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도 한·두 가지에 특화하여 자국 금융시스템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외국 선진저축은행들의 고유의 성장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의 구성 등에서 저축은행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경영전략의 차이로 인한 수익구조의 변화로 저축은행들간의 당면 문제점 및 추진과제도 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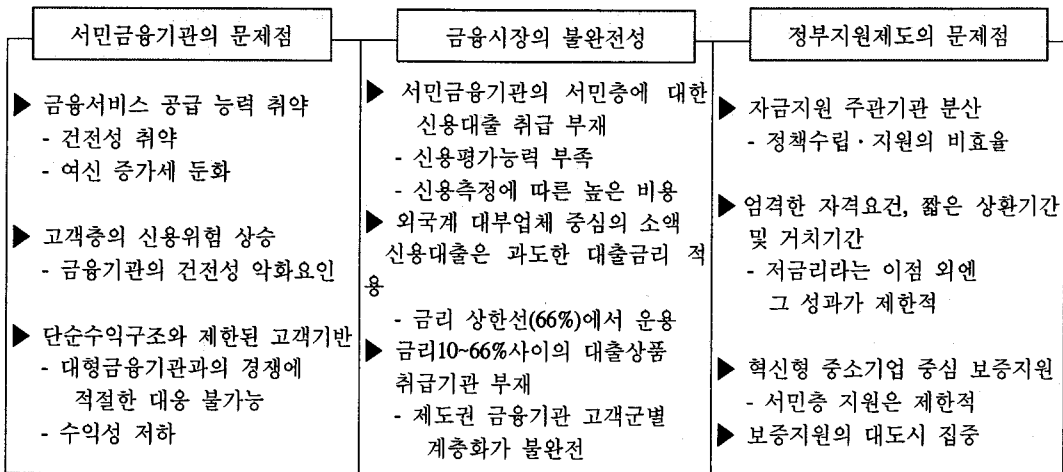
따라서 저축은행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세 그룹¹⁰⁾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와

9)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까지 장기 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한다.

같이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저축은행, 중소기업 여신 확대 등을 통한 지방은행형 중형저축은행, 그리고 틈새시장 적극 개척을 통한 종합금융사형을 지향하는 대형저축은행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그룹화와 내적 양극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된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들은 자신의 역량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할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서민금융 체계상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기회복 지연 및 양극화의 심화로 소득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신용 하위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경영형태로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저신용 서민 및 영세사업자가 제도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서민층의 경제력은 더욱 약화되고,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은 결국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사회 안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원인이 된다. 공공차원의 적절한 지원 없이는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자료: 김용훈, 한·미 FTA 체결후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전략방안, 2007.6. p.29.

<그림 4> 서민금융 체계상의 문제점

따라서 서민금융의 바람직한 추진과제¹¹⁾로는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해 서민금융은 상업적 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부예산이나 공적자금을 기초로 공영원리에 의해 금융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휴면예금,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 부분 등을 공적자금으로 활용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자 계정에 대한 차입금의 무이자 전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인하 적용, 예금보험요율 인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저신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역차별적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영업점 설치 규제 완화, 고금리 상품 및 비과세 상품 허용, 정부 정책자금 취급 허용, 신탁업 및 외국환 업무 허용 등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추진과제이다.

3. 저축은행의 성장전략 모색

앞에서 논의된 금융환경 변화의 큰 흐름과 저축은행의 금융권내의 위치와 역할, 저축은행이 처한 문제점과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저축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정체성과 위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적 구도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합한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의 성장전략을 강구해야하는 입장이다.

1) 대형·겸업화 및 사업기능의 다각화 추구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M&A 또는 해외자금 유치를 통한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거대 여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공동출자하여 사업기능을 보완하는 연계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회사, 신탁, 신용카드, 채권추심회사, 증권, 지급보증회사, 유가증권 대여, 부동산 중개, M&A 알선,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 등 업계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위한 연계금융회사를 설립하여 복합금융상품 출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주목할 때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간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세계적 금융네트워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편입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11) 이현식, 금융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사회과학회, 2008. 2. pp.53-54

2) 지역밀착형 자금중개 기능의 강화

금융시장의 대형화·겸업화·증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지역밀착형 자금중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력에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공개된 기업정보나 신용상의 공신력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장기적 고객관계를 통해서만 그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¹²⁾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장기적 고객관계를 통해 확보된 고유의 통제방법과 감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은 지역은행만의 강점인 이러한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을 백분 활용하여 지역내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 글로벌화 경쟁 속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서비스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겠지만, 각 지역이 가진 개별적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변화 추세 가운데에서도 지역금융기관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 즉, 지역금융은 금융업무에서 일종의 틈새시장인 바,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역내 서민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자본 환원 업무를 주요 원천으로 하여 지역전문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3)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도모

시중은행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과 시중은행의 주 고객층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중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저리의 자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제휴를 통해 지방영업이 어려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서민금융에 대한 고객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시에도 은행과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위험 분산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현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우리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자흐스탄의 사무용 건물 건축에 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동부저축은행도 하나금융과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2) 지역 중소기업은 전국 규모의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경영성과 자료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중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 평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쉽지 않다.

〈표 8〉 저축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은행	진출국	투자규모	투자형태	파트너
동부저축은행	중 국	10억 원	오피스텔	하나금융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	신도시건설	단독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카자흐스탄	500억 원	오피스텔	우리금융

4)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역량 강화

구미 선진은행들은 리스크관리를 경영전략수립,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금리정책의 수립, 성과평가 등 은행경영의 전 분야의 사업계획 및 전략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리스크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개념 활용은 아직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이나 성과평가 등 부분적인 적용에 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저축은행 업계의 리스크관리 수준은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민금융에 특화된 선진기법을 구현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로 인해 여러 금융권역의 거래를 통합하는 신상품 개발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고, 상품의 교차판매, 내부거래 등으로 업종 리스크 전염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형화로 인해 리스크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대형화된 금융기관은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효과를 이용해 오히려 고위험 전략을 추구할 유인도 증가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모든 금융기관에게 생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업계도 현실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감독 지침을 개발하고, 업계와의 공동 작업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5)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저금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 수요자들의 니즈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다양한 상품 설계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전문 인력의 창조적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유수의 선진금융기관들이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가장 강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에 능숙한 전문 인력의 확보는 국내 금융부문의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미간 FTA로 미국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인력의 스카

웃, 또는 국내 인력의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6) 공공차원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의 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된 금융기관이라는 설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감독 당국은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관련 규제와 제도를 완화시켜주어야 하며, 앞서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민금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저축은행이 지역내 저신용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역금융의 중추적 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독립적인 지역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과토양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VI. 요약 및 결론

한·미 FTA 체결은 더 이상 국내 금융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되며, 미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전폭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장 잠식, 즉 개방에 따르는 수수료는 지불하되 선진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 개방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시장중심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무조건 모방, 전환하기보다는, 시장 하부구조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시장금융시스템이 자생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시장 하부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은행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상품개발,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등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미국 금융자본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 10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국내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국내은행이 모두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에 인수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국내 금융환경에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게는 한·미 FTA 체결 및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업계는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의 성장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형·겸업화 및 사업기능의 다각화,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도모,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역밀착형 자금중개 기능의 강화,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타 금융기관 및 지역은행 상호간의 업무제휴나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저축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는 성장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주목할 때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저축은행간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세계적 금융네트워크에 내적 대응력을 갖추고 편입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금융기법의 고도화, 금융거래의 복잡화 등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업계도 현실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금융 글로벌화에 대응한 한국 금융산업의 주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축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정체성과 위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적 구도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의 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된 금융기관이라는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내 서민들과 중소기업 전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감독 당국은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관련 규제와 제도를 완화시켜주어야 하며, 서민금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저축은행이 지역금융의 중추적 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독립적인 지역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과 토양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경제의 역동성은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는 장기적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지역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상욱,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2006.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 분석, 2007.
 김영기·장영광,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지표 타당성 분석 및 도산 예측”, 「한국금융학회」, 2004.
 김희선, “위기의 상호저축은행, 어떻게 살려야하나?”, 「2005정책보고서」, 2005.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현황, 2005.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역할 증대방안, 2005.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현황, 2006 / 2007.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방향, 2007. 5. 29.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선도금융 역할 수행을 위한 저축은행의 경영혁신전략, 2007. 10. 24.
- 서윤석,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 산업의 영향 분석”, 손해보험 5월호, 2006.
- 송지영, 시장중심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금융개혁의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4.
- 신보성·박경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의 선진화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5.
-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주간금융브리프」15권 10호, 금융연구원, 2006.
- 신용상, 한·미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 「주간금융브리프」15권 23호, 금융연구원, 2006.
- 예금보험공사,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여수신 동향, 「보도참고자료」, 2006.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1차 공식 협상 결과, 2006. 6. 9.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결과, 2006. 7. 14.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결과, 2006. 9. 9.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2006. 10. 27.
- 이건호,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의 저축은행 발전방향”, 「2007년도 상호저축은행장 세미나 자료집」,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2007. 10. 24.
- 이현식, “금융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사회과학회, 2008. 2.
- 장용, 금융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의 미래, 「저축은행 중앙회」, 2007. 5.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의 미래, 2007. 11. 5.
- 정인교, 한·미 FTA에 거는 기대, 2006. 3. 20.
- 정찬우, “리스크관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전략”,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05. 정찬우, “저축은행 중앙회의 기능과 자원공유”,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07.
- 한국금융연구원, 비은행권의 향후 비전과 감독방향, 2004.
- 한국금융학회, 상호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2007. 6.
- 한국경제연구원,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5.
- 황동원, “국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의 성공 조건”, 한국경제주평, 2006. 1. 17.
- 황동원,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6. 6. 12.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http://www.fsb.or.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www.ecos.bok.or.kr/>